

포근한 봄날, 싱그러운 희망을 기다리며

작가 에세이

김정

한국아동문학 이사
생활예총광주문학회 회장



겨울의 끝 자락에서 봄의 기운이 움틀 때, 고향으로 부터 달려오는 봄 바람이 어느 덧 아파트 베란다에 흥매화와 함께 찾아왔다. 올해의 입춘(立春)은 지난 2월 4일 이었는데 기운은 영하권 이었고 눈보라가 날렸었다. 요즘도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다. 외출을 할 때는 두터운 옷으로 단장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입춘 추위는 꺾서라도 함께 한다는 말이 있다. 봄의 길목으로 들어선다는 입춘이와도 겨울은 아직 꽤 많이 남아 있다는 옛 조상들의 생각이 재미있다.

어릴 적 우리집 대문과 집안 기둥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글귀가 붙어있곤 했다. 이 글귀를 붙이는 것도 날자와 시간이 있다고 한다. 봄 기운이 찾아오는 시점을 정확히 잡아 그날 그 시간을 선택해야 글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 입춘은 24절기중 최초 절기이며 동지이후 대지의 음기가 양기로 돌아서면서 모든 사물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절기다. 옛 조상들은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글귀를 집안에 붙였다고 한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봄을 맞이하여 집안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런 일들이 있기를 기원 한다'는 의미다. 봄 기운에 실려오는 활기와 신선함을 집안으로 끌어 들여 한 해의 평안을 기원했던 그 때가 그립다.

올해도 입춘날 도심에서 이 글을 발견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글귀를 살펴 보면서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아 벌써 봄은 멀지 않은 곳에 와 있구나. 이제 추위도 조만간 누그러질 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 해야겠다고.

이런 세시풍속은 입춘첩(立春帖)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입춘첩이란 조선시대 입춘날 명절을 맞아 문관들이 임금님께 시를 지어 바치는 행사에서 유래 되었다. 입춘날 임금님께 바치는 글 중에서

“지난 겨울은 유난히 힘들었다. 그 겨울, 땀에 흠뻑 젖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녹여 줄 수 있는 포근한 봄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빌어본다”

제일 잘된 작품을 뽑아 글을 대궐안의 정각이나 기둥,문설주에 붙였다고 한다. 특히 입춘첩 중에는 대궐 신하들이 지은 시를 '춘척자'라고 했고, 일반 민가에서 지은 글을 '훈련'이라고 했다. 양반집에서는 옛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오거나 글귀를 자작하여 봄이 오는 날을 축하했었는데 '축' 글은 '춘축' 또는 '입춘방', '입춘축'이라고 했다. 이때 민간인이 쓴 훈련은 글자 수 즉 대구를 두 구 절씩 썼다고 하여 이를 '대련'이라고 하였다. 봄에 관한 문귀를 살펴보면 '래춘'(來春)은 여자의 계절 봄이 왔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입춘(立春)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뜻이었으며, '개춘'(開春)은 다시 돌아오는 봄이란 뜻이다. 또 '당

춘'(當春)은 드디어 봄이 되었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방춘'(芳春)은 꽃이 한창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봄이라는 뜻이다, '상춘'(賞春)과 '감춘'(酣春)도 각각 봄의 경치를 구경하며 즐긴다는 뜻과 봄이 한창 무르익어 온통 녹색으로 변하는 절기를 의미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버들강아지와 매화꽃은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피어 나지만, 남쪽 지방에서 부터 소식을 알린다. 겨울과 봄의 틈새에 피어나는 매화는 눈속에서도 피는 꽃으로 설매라고 한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동감 있게 기지개를 펼치며 활기로 넘칠 때, 목련,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냉이, 쑥, 민들레는 싱그러운 추억속 엘범으로 매년 정겹게 다가오는 생명체들이다.

이번 주도 찬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부터 이상기온, 자연재해까지 지구촌 여기 저기에서도 부정적인 소식들이 가득하다. 언론 매체에서 매일 국내 정치인들의 갈등을 집중 보도하는 것도 답답지 않다. 우리 가정 주부들은 가계부를 기록할 때마다 도시가스, 전기, 유류 등 난방비 폭탄에 한숨만 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냉골이다. 그야말로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胡地無花草春來不似春)는 꼭 그 형국이다. 그래도 한결을 한결을 봄은 우리를 찾을 것이다. 모두에게 즐거움과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힘들었다. 그 겨울, 땀에 흠뻑 젖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포근한 봄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빌어본다.



기고 최향동 전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

익숙한 것과의 결별 바뀌는 광주시의 소통방식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직접 소통'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그리 흔한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시장이나 실국장을 통한 간접 소통이 많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강 시장의 직접 소통은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월요대화'나 '정책소풍'이 그렇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며 현장 중심의 직접 소통이다. 그러다 보니 소통 과정에서 갈등의 피가 튀고, 튀는 피를 온통 강 시장이 맞고 있는 느낌이다. 언론에 드러나는 모습이 보기에는 다소 사나워도 실상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소통은 본질상 다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뒤라야 공감에 이르기 위해 불협화음은 오히려 필연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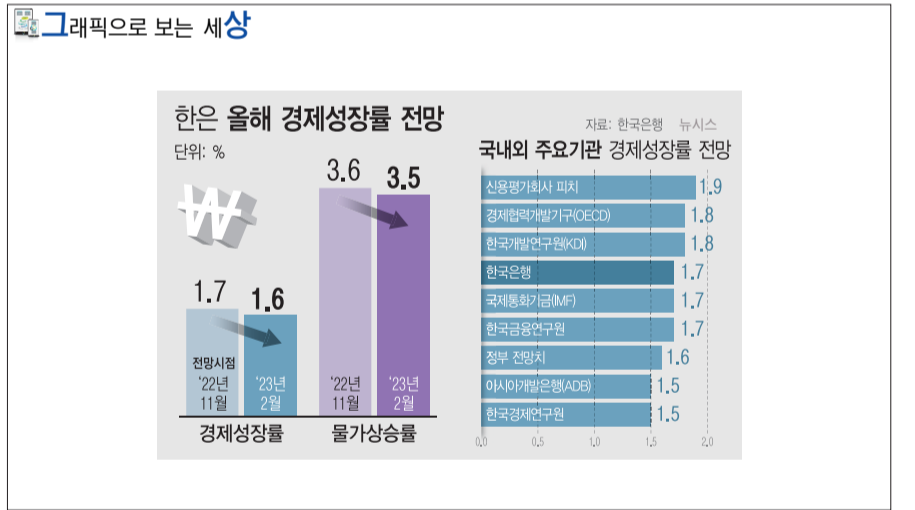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여기저기서 갑론을박도 많다.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와 갈등이 깊었던 탓인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시장이 갈등을 조정하면 되지 '굳이 피뎠을 일 있냐' 부터 말투나 표정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강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방향은 뒷전이 되기도 한다. 물론 소통의 과정에서 말투나 표정은 상대방의 설득을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서 본말이 바뀌는 곡해가 계속된다면 광주시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항은 어찌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소통은 그래서 아픈기도 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현안이나 숙원사업은 늘 이슈의 중심에 자리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중심이슈를 어떻게 소통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기에 더욱 그렇다. 그만큼 이슈의 소통과정이 주는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거의 실상은 대부분 형식적이며 불분명한 언어들로 보기 좋게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분명해 입장보다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바른 소리의 희망고문이 시시때때로 작렬하기도 했다. 특히 낡은 정치인들의 화법이 그러했다. 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예전엔 많았다.

그런 점에서 강 시장의 태도는 분명해 보인다. 직접 만나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른바 '직격'이다. 현장에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집단을 찾아가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추어 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큰 잡음 없이 고상해 보이던 과거의 시장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공동체를 위한 단체장의 소통노력에 직접 소통의 민낯이 드러난들 어쩌랴. 서로의 민낯이 드러나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으니 속빈 강정의 낡은 화법보다 생생한 직접 소통이 더 좋을 때가 많다. 새로운 방식은 늘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 시·광주'에서 강시장의 '직격 소통'이 주목받는 까닭은 거기에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르비아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계 1위)가 22일(현지시간) 베오그라드에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출전을 위해 특별 입국 허가 요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밝혔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조코비치는 현재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베오그라드=AP/뉴시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편 천연가족 리얼라이니 쇼파석 (K/불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퀘어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2관	서치 2 바다 탐험대 옥토넷 육지수호 대작전
3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4관	카운트
5관	엔트맨과 와스프:퀸템메니아
6관	서치 2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상견니/매간
8관	어메이징 모리스/영웅/살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9관	카운트/TAR 타르/교섭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